

## 18강 - 학교 안전사고 시 교사의 책임 범위

### ■ 학습목표

학교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교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숙지한다.

### ■ 학습내용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별, 장소별로 교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 ■ 핵심용어(용어사전)

\* 법정감독의무자 :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이고 금치산자에 있어서는 후견인이다.

\* 대리 감독자 : 법정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 탁아소의 부모,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학교의 교원, 정신병원의 의사 등이 대리 감독자이다.

### ■ 사례 :

#### <사건의 개요>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B시가 설치·운영하는 J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A는 7교시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인 B의 지도 아래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10회 내지 15회 가량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A는 동공이 풀린 채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체육교사 B는 학생들을 시켜 A를 반듯이 눕히게 하였으나, 1, 2분 가량이 지나도 상태에 변화가 없자, A의 얼굴을 두드려본 뒤 학생들을 시켜 팔다리를 수분 동안 주무르게 하였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A를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A의 호흡 여부를 확인하여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이 없이 5분 가량이 지체 되었고 양호실에 도착한 A는 양호교사에 의해 5, 6분 정도 걸려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로써 A가 쓰러진 때로부터 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14, 15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A는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되었다.

이에 A 및 A의 부모는 B시(교육감) 및 체육교사 B 및 J고등학교 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 및 A의 부모의 청구는 타당한가?

### <이 사건의 쟁점>

체육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에 처한 경우, 체육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 <사건의 결말>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 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킨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육교사로서는 즉시 A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A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 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A 및 A의 부모의 청구는 타당하다.

### <전문가의 의견>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다.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와 같은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본 학습>

#### 1.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가.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

- (1) 학교 및 학교장의 영조물 관리 소홀에서 오는 사고
- (2) 교사의 지도하에서 오는 사고

나. 원인행위자별 분류

- (1)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

학생의 고의에 의한 사고 : 자살, 자해사고

학생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 (2) 교원에 의한 사고

체벌에 의한 사고

심리적 처벌에 의한 사고

직무상 소홀 등에 의한 사고

(3)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폭행사

집단 따돌림에 의한 사고

학생간부의 학생지도 중 체벌사고

(4)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

식중독 등에 의한 사고

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의한 분류

(1) 정규교육활동중의 사고

일반교과수업중의 사고

일반교과수업중의 사고

실험실습중의 사고

체육시간중의 사고

(2)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특별활동중의 사고

체육대회, 축제, 합창대회 등 교내 행사 중의 사고

현장학습, 소풍, 사생대회,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 중의 사고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중의 사고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중의 사고

학교급식중의 사고

청소활동중의 사고

(3) 비정규교육활동중의 사고

보충수업, 자육학습중의 사고

방과 후 교육활동중의 사고

학교의 일과 전·후의 사고

등·하교중의 사고

라. 교원의 임장여부에 의한 분류

(1) 임장중의 사고

(2) 비임장중의 사고

마. 장소에 의한 분류

(1) 학교 안에서의 사고

(2) 학교 밖에서의 사고

바. 피해의 내용 또는 정도에 의한 사고

(1) 사망, 상해, 정신적 피해 등의 사고

(2) 피해의 정도가 중한 사고 또는 악한 사고

## **2.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3.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

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4.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 가.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창원시 소재 K중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000m 오래 달리기 등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각 종목마다 20점씩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체력검사는 오전에 1,000m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오전에 측정한 종목만으로도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받았는데, 15:40경 25명씩 조를 지어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 약 20m를 앞두고 쓰러져 체육 주임교사등이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A의 담임교사는 점심시간 중 학생들에게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하였다.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 계통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호흡순환기능의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므로 이를 실시하는 담당교사들로서는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하여 위 종목의 체력검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키거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상남도(교육감)는 위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 및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인 A는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A 및 A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괴롭힘은 통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고, 그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해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A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다. 공립중학교내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U시가 설치·운영하는 T중학교 학생인 A는 중학교내 교실 안에서 자율학습시간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B로부터 등을 2회 주먹으로 맞았고, 옆에 있던 C는 주먹으로 A의 얼굴과 팔을 때렸으며, D는 옆에서 A의 목살을 잡았다.

며칠 후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A의 등을 수 회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위 B, C를 포함한 총 8인의 같은 반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A의 머리와 등과 팔등의 신체부위를 수 회씩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A는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이따금 엎드려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A는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좌상, 구내 열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사고 상황에 대한 반복적 회상, 대인관계 기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담임교사인 R은 이 사건 집단폭행이 있기 전에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A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가해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고, 며칠 후에는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인들을 불러 질타하기도 하였다.

## 라.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손해배상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당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해학생들은 모두 위 집단폭행 당시 13세 전후한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그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사회에서는 학교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A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A 및 A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T중학교를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의무가 인정된다.

이 사건 집단폭행은 두 차례 모두 교실 내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같은 반 급우들인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집단폭행이 이루어질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던 점, 가해학생들은 모두 한창 장난기가 많을 뿐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때로는 동료 학생들에게 거친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중학생들인 점, 당시 담임교사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학생들 중 1명이 A를 가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반 여학생 중 1명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학생들을 불러서 질타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내 상황에 비추어 A가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폭행을 당하도

록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U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A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체벌로 인하여 학생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경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5.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H 학원이 설립한 L사립 고등학교 2학년(당시 17세 2개월 에 재학중인 A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급우인 J가 장난을 할 의사로 위 A모르게 그 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우측발로 의자다리의 뒷부분을 갑자기 걷어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세멘콘크리트로 된 교실벽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뇌좌상, 기억력상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맡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학원으로서 그 교육의 한 부분인 학생들의 집단생활을 일반적으로 보호 감독하여야 하고, 학생들간의 심한 장난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담임교사나 기타 당직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 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

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인 J는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A와도 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K도가 설치·운영하는 S 중학교 1학년 1반생인 C는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A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B와 장난을 치다가 그 밀대에 묻어 있던 더러운 물방울이 도시락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쳐서 그에게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상을 입혔다.

C는 위 1학년 1반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반면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C는 봄 경에는 D가 미술교사의 치마 속을 드러다 본 일이 있어서 미술교사의 지시에 따라 D를 그 녀에게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D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턱을 쳐서 뒷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안경을 떨어뜨려 렌즈가 빠지게 하였고, 9월 경에는 축구를 하던 중 E와 부딪치자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던 E의 얼굴을 발로 차서 볼이 툭툭 부어오르게 한 적도 있는 학생이다.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

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I시가 설치 운영하는 S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A는 10:00경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폭행을 당한 이유는 A 등이 학교 담을 넘어 나갔다 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체육교사로부터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아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체육시간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 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 C는 만 14세 4개월 정도로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고, 비록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급하나 본성이 착하여 평소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없으며, A와 같은 급우로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A도 비록 공부는 못하나 심성이 고운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으며, 체육교사가 단체기합을 주게 된 동기와 약 5분 정도에 걸쳐 쪼그려뛰기 20회, 엎드렸다 일어나기 20회, 팔벌려뛰기 20회를 실시한 체벌의 방법과 정도로 보아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고, 그 단체기 합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A등에게 반감을 가질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체육교사나 담임교사 등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에 앞서 체육교사가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체육교사 등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그 중 한학생이 다친 사안에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D 산하 S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면서 씨름부 소속이던 A는 학교 씨름연습장에서 체육교사의 지도 아래 씨름훈련을 마치고, 같은 씨름부 학생인 B, C등과 함께 샤워순서를 기다리던 중 B와 씨름기술을 구사하여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B가 힘과 기술이 모자라 계속하여 넘어지자 C가 이를 보고 D를 도와주기 위하여 A의 다리를 잡고 B가 A의 허리를 잡아 “하나, 둘, 셋”하고 A를 위 씨름연습장에 던져 몸무게가 80Kg이 넘는 A가 몸의 균형을 잃고 머리 부분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아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샤워 시간은 씨름연습이 끝나고 예정된 회식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씨름연습장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1년생인 가해자들과 피해자의 연령은 모두 16세 가량으로서 상당한 분별능력

을 갖출 나이이고, 가해자들의 성격도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친밀한 사이였으며, 이러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정리하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평가하기

### 문제1.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

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4)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답 (2)

해설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 2.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치므로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

(2)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므로 이를 실시하는 담당교사들로서는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하여 위 종목의 체력검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키거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담임교사는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정답 (1)

해설 :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

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문제 3.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고가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인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샤워 시간은 씨름연습이 끝나고 예정된 회식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씨름연습장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